



 **질그릇교회**
CLAYJARS

1314 N Angelina Dr. Placentia CA 92870

www.clayjars.org

황성만 목사 Rev. Sungman Hwang

October 25, 2026

제24권 43호

2026년 교회 표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요13:34~35, 요일4:11)

Christians Who Sharing Love

: Embracing All, Serving All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giving you a new command. You must love each 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If you love each other,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요한복음(John) 13:34~35]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om the beginning you were told that we must love each other.

[요한일서(John 1) 3:11]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rinthians 4:7)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성령강림절 후 스물두번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

October 25, 2026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5:11-13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온 맘 다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고백의 기도 *	
Prayer of Confession	
신앙고백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기도	윤치선 집사
Prayer	
성경봉독	정해철 집사 , 레위기(Leviticus) 19:1-2, 15-18
Scripture Reading	교독-다함께 ,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2:1-8
복음서봉독	마태복음(Matthew) 22:34-46, 설교자
The Gospel	
오늘의 말씀	"담을 넘어 오신 거룩"
Sermon	The Holiness That Crossed the Wall - 황성만 목사
봉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Offering	(세례 교인만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The Lord's Supper	
결단찬양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08)
Responsive Song	What s Wonderful Change
축도 *	
Benediction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황성만 목사**

| 다음주 본문 | 봉독자 **김미정 집사** 미가(Micah) 3:5-12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2:9-13

마태복음(Matthew) 23:1-12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 115:11-13)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형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 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 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수 없네

내영 흥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온맘 다해

(주님과 함께 하는)

KaMU

Babbie Mason

G G/B D/C C E7/B Am7

주 님과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 님의보좌앞에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것아- 사-니 나 오직주의얼굴

4 D7sus4 D7 Bm7 Em7 D 3 C G/B

내 마음을- 쏟-네 ~ 모든것아 시는주 님 게 감출것없네
구 하게하- 소-서 다 이해할수없을때 라 도 ~감사하며

8 Am7 G/B CM7 C6 D7sus4 D7

내 맘과정성다해 주 바라나- 이- 다 온 맘 다
날 마다순종하며 주 따 르오- 리- 다

12 G Bm7 CM7 C6 E7/B Am7 Am7/G D7sus4 D7

해 사랑합 니다 - 온맘 다 해 주알기 원하네 내모든

16 Em Em/D A9/C# A7/C# G/D C/D D7 G

삶 당신것 이니 - 주만섬 기 -리 온맘다 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84

Psalm 46
M. Luther, 1529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시 46 : 1)

EIN FESTE BURG: 8.7.8.7.6.6.6.6.7.
M. Luther, 1529

보통으로 ♩ = 92



1. 내 주는 강 한 성 이 요 방 패 와 병 기 되 시 니
2. 내 힘 만 의 지 할 때 는 패 할 수 밖 에 없 도 다
3. 이 땅 에 마 귀 들 꿇 어 우 리 를 삼 키 려 하 나

1. A might - y For - tress is our God, A Bul - wark nev - er fail - ing;
2. Did we in our own strength con - fide, Our striv - ing would be los - ing;
3. And though this world, with dev - ils filled, Should threat - en to un - do us,



큰 환 난 에 서 우 리 를 구 하 여 내 시 리 로 다
힘 있 는 장 수 나 와 서 날 대 신 하 여 싸 우 네
겁 내 지 말 고 섰 거 라 진 리 로 이 기 리 로 다

Our Help - er He, a - mid the flood Of mor - tal ills pre - vail - ing.
Were not the right Man on our side, The Man of God's own choos - ing.
We will not fear, for God hath willed His truth to tri - umph through us.



옛 원 수 마 귀 는 이 때 도 힘 을 써 모 락 과 권 세 로
이 장 수 누 군 가 주 예 수 그리스 도 만 군 의 주 로 다
천 척 과 재 물 과 명 예 와 생 명 을 다 빼 앗 긴 대 도

For still our an - cient foe Doth seek to work us woe; His craft and pow'r are great;
Dost ask who that may be? Christ Je - sus, it is He, Lord Sab - a - oth His Name,
The prince of dark - ness grim, We trem - ble not for him; His rage we can en - dure,



무 기 를 삼 으 니 천 하 에 누 가 당 하 라
당 할 자 누 구 라 반 드 시 이 기 리 로 다
진 리 는 살 아 서 그 나 라 영 원 하 리 라 아 멘

And, armed with cru - el hate, On earth is not His e - qual.
From age to age the same, And He must win the bat - tle.
For lo! His doom is sure; One lit - tle word shall fell him. A - men.

분투와 승리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레위기(Leviticus) 19:1-2, 15-18, 새번역, ESV]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15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16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17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18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1 And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2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15 "You shall do no injustice in court. You shall not be partial to the poor or defer to the great, but in righteousness shall you judge your neighbor. 16 You shall not go around as a slanderer among your people, and you shall not stand up against the life of your neighbor: I am the Lord.

17 "You shall not hate your brother in your heart, but you shall reason frankly with your neighbor, lest you incur sin because of him. 18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or bear a grudge against the sons of your own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2:1-8, 새번역, ESV]

-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 2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 3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4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말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5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 6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 7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 For you yourselves know, brothers, that our coming to you was not in vain. 2 But though we had already suffered and been shamefully treated at Philippi, as you know, we had boldness in our God to declare to you the gospel of God in the midst of much conflict. 3 For our appeal does not spring from error or impurity or any attempt to deceive, 4 but just as we have be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so we speak, not to please man, but to please God who tests our hearts. 5 For we never came with words of flattery, as you know, nor with a pretext for greed—God is witness. 6 Nor did we seek glory from people, whether from you or from others, though we could have made demands as apostles of Christ. 7 But we were gentle among you, like a nursing mother taking care of her own children. 8 So, being affectionately desirous of you, we were ready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also our own selves, because you had become very dear to us.

[마태복음(Matthew) 22: 34-46, 새번역, ESV]

- 34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 35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 36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 39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 40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 41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 42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 43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 44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 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34 But when the Pharisees heard that he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y gathered together. 35 And one of them, a lawyer, asked him a question to test him. 36 "Teacher,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37 And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 This is the great and first commandment. 39 And a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40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41 Now while the Pharisees were gathered together, Jesus asked them a question, 42 say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y said to him, "The son of David." 43 He said to them, "How is it then that David, in the Spirit, calls him Lord, saying, 44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45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is he his son?" 46 And no one was able to answer him a word, nor from that day did anyone dare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이번주 작품]



렘브란트 판 레인, 「백 길더 판화」

(Rembrandt, The Hundred Guilder Print)

1648 년경, 동판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등 여러 곳 소장).

마태복음 19 장의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모은 작품입니다.

1. 중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후광이 그림의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철틀 하나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과연 렘브란트를 에칭동판화의 대가라고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2. 그림 속 군중은 두 종류의 부류입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혹은 수레에 실려 들어오는 병자,
예수님 발치에는 이미 눕혀져 치유의 은사를 기다리는 누운 여인,
어린이들,
외국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찾아온 외국인(우측 끝에 터번을 쓴
흑인) 등등,
시선을 예수님을 향며 그의 말씀 혹은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어떤 핑계로 예수를 꿈쩍 못하도록 움아맬까며
얼굴을 뒤돌려 자신들끼리 수군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림의 좌측에 밀집한 관리복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3. 아기를 안고 예수님 앞에 선 어머니의 좌측 편에는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왼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 중인
부자청년이 있습니다. 그림의 우측 끝 입구 쪽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낙타를 강제로 집어넣겠다고 애쓰는 이는, 부자청년의
종이라 보입니다.

4. 아기를 안은 어머니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는 대머리 아저씨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던 애제자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만
렘브란트의 소장품 중 하나였던 소크라테스 두상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 좌측에 높은 가죽 모자를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 중인
이는 “인문주의자의 왕자”인 “에라스무스”가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동서고금을 통한 오직 한분, 진리의 빛임을 상징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71

All to Jesus I Surrender
(죽 21 : 4)

J. W. Van De Venter, 1896
보통으로 ♩ = 92

SURRENDER: 8.7.8.7. REF.
W. S. Weeden, 1896

1. 내 게 있 는 모 든 것 을 아 김 없 이 바 치 네
2. 내 게 있 는 모 든 것 을 겸 손 하 게 바 치 네
3. 내 게 있 는 모 든 것 을 주 를 위 해 바 치 네

1. All to Je - 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2. All to Je - sus I sur-ren-der, Hum-bly at His feet I bow,
3. All to Je - sus I sur-ren-der, Make me, Sav-iour, whol-ly Thine;

사 랑하 고 의 지하 여 주 만따 라 가 겠 네
세 상복 락 멀 리하 니 나 를받 아 줍 소 서
크 신권 능 충 만하 게 내 게내 려 줍 소 서

I will ev - 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 - ly live.
Word-ly pleas-ure all for-sak-en, Take me, Je - sus, take me now.
Let me feel the Ho - ly Spir - it, Tru - ly know that Thou art mine.

후렴

주 게드리 네 주 게드리 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주게드리네
I surrender all,

주게드리네
I surrender all;

사 랑하 는 구 주앞 에 모 두드리 네 아 멘
All to Thee, my bless-ed Sav-iour, I sur-ren-der all. A - men.

현금

거듭남

R. H. McDaniel, 1915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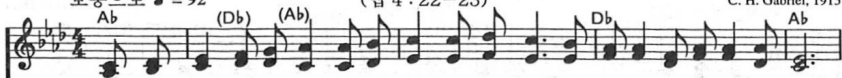
What a Wonderful Change

(엿 4 : 22-23)

McDANIEL: 12.8.12.8. REF.

C. H. Gabriel, 1915

보통으로 ♩ = 92



1.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 고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 고
3. 내 맘에 소망을 둔 험한 자가 다 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고
4. 사탄의 음침한 골짜기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고
5. 나 이 제 천성에 올라 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고

1. What a won - der - ful change in my life has been wrought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2. I have ceased from my wand'ring and go - ing a - stray,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3. I'm pos - sessed of a hope that is stead - fast and sure,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4. There's a light in the val - ley of death now for me,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5. I shall go there to dwell in that cit - y I know,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내 가 늘 바 라 던 참 빛 을 찾 음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머 리 털 보 다 도 더 맑 을 던 내 죄 가 눈 보 다 더 희 어 졌 네
의 심 리 구 를 이 사 라 제 버림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저 멸 의 하 를 문 하 게 보 임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천 성 을 향 하 여 내 가 곧 가 리 니 그 기쁨 비길 데 없 네

I have light in my soul for which long I had sought,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And my sins which were man - y are all washed a - way,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And no dark clouds of doubt now my path - way ob - scure,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And the gates of the cit - y be - yond I can see,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And I'm hap - py, so hap - py, as on - ward I go,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오심
Since Je - sus came in, came in - to my heart, Since Je - sus came in, came in - to my heart,



물 밀 듯 내 맘에 기쁨 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 심
Floods of joy o'er my soul like the sea - bil - lows roll, Since Je - sus came in - to my heart.



[소그룹 설교 나눔 질문]

1. 거룩은 담이 아니라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레 19:2)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룩을 지키려고 친 율타리가 어느새 사람을 가르는 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이 우리가 지켜 내는 소유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까이하지 않아 온 사람이나 발을 들이지 않아 온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자리입니까? 그 담은 처음에 무엇을 지키려고 세운 것이었는지 돌아본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2. 담은 말로도 쌓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레 19:16)

레위기의 거룩이 성전이 아니라 재판정과 일상의 말과 마음속으로 내려왔습니다. 담은 돌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야, 이렇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로도 쌓이게 됩니다.

최근 누군가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옮겨 온 이야기에 맞장구를 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를 만들었는지 떠올려 본다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3. 담 밖에 서 본 우리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레

19:18)

거룩으로 시작된 레위기 19 장이 사랑으로 끝나며, 그 사랑이 나그네에게까지 넓혀집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담 밖에 서 보았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만의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와서,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담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기억이 오늘 내 곁의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는 내 눈에는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4. 담이 없는 마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마 22:37)

"다한다"는 것이 마음 한가운데 담을 세워 한쪽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 않은 마음 전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아는 것과 담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고 칸막이를 쳐 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 칸막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5.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룩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마 22:42)

나병환자를 만지시고, 세리의 식탁에 앉으시고, 마침내 성문 밖 십자가로 나가신 분. 사람들은 거룩을 지키려고 담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내가 담 밖에 서 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담을 넘어 나를 찾아오셨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지금 떠올려 본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셨습니까?

6. 거리에서 품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살전 2:7)

거룩의 담을 가장 높이 쌓았던 바리새파 사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 거리를 두는 거룩에서 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거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신 열매였습니다.

내가 담 밖에 세워 두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지금 떠오른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담이 아니라 문을 낸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번 한 주간, 하루 한 번 머물러 보기

하루에 한 번, 집이나 일터의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문을 열며, 내가 담 밖에 세워 두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담을 넘어 오신 그분이 내 안의 담에도 조용히 문을 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문 앞에 한 번 더 서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담 밖에 서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에 기대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담 대신 문을 내는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말씀구절 Bible Verse

이번주 본문 중에서 - 레위기(Leviticus) 19:2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2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2:8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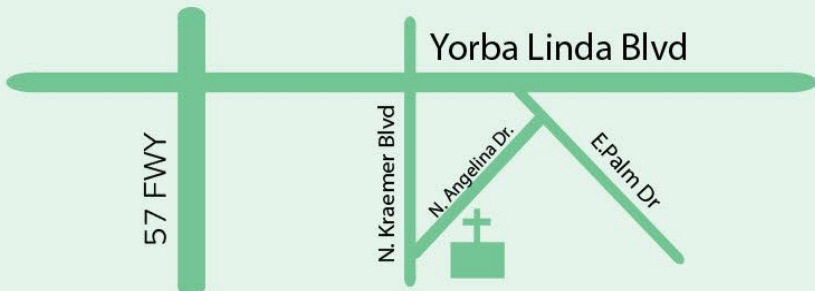
8 So, being affectionately desirous of you, we were ready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also our own selves, because you had become very dear to us.

마태복음(Matthew) 22:37-38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37 And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 This is the great and first commandment.

찾 아 오 시 는 길



교회 소식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97 3213 9944,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주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주는 식사 교제 후 [찬양모임] 시간으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3.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4. 기도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온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5. 섬김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기도	윤치선 집사	황성만 목사	정해철 집사	윤치선 집사
성경봉독	정해철 집사	김미정 집사	김형귀 집사	유은복 권사
식사	정해철	교회	박효혜	김형귀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대학, 청년부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모 임	말씀의 여정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목요 북클럽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전 9:30
	찬양모임	친교실	4째주 주일 오후 3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